DBpia

한국판 ENRICH 결혼만족 검사의 타당화 연구

The Validation Study of K-ENRICH Inventory

저자 (Authors)

김덕일, 박재우, 송원영, 이지연

Kevin Deok Il Kim, Jae Woo Park, Won Young Song, Jee Yeon Lee

출처 (Source)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2009.06, 11-33 (23 page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7, 2009.06, 11-33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063570

APA Style

김덕일, 박재우, 송원영, 이지연 (2009). 한국판 ENRICH 결혼만족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11-33.

이용정보 (Accessed)

건양대학교
211.225.30.***
2017/11/04 19:2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009. 11. 11 - 34

한국판 ENRICH 결혼만족 검사의 타당화 연구

김덕일 / 연세대학교*
박재우 / 가톨릭대학 부속 부천성가병원
송원영 / 건양대학교**
이지연 / 인제대학 부속 상계백병원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부부 관계에서의 고정적인 성역할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등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가족에서는 역할의 갈등, 육아 및 가사 분담의 문제 등을 심하게 경험하고 있다. 200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전년 대비 15%가 증가하였고, 결혼 대비 이혼율은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보고도 있었다(유재성, 2004). 이혼한 부부의 수는 2006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2만 5천 쌍으로서 2005년에 비해 2.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인구수의 감소에 따른 결과이고, 인구 1천 명당 이혼율을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5로 2005년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증가 또는 유지

* 제1저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추세에 있는 것을 말해 준다. 5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이 전년 대비 7.3-7.8% 정도 증가되고 있다는 특이한 양상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1990년대 후반 가정폭력 예방과 같은 문제중심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가 2003년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군구 단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 지원하고 이혼전 상담, 부부생활교육, 가족문화행사 지원 등 가족과 부부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예방적 노력까지도 기울이고 있다. 종교나 시민단체에서도 아버지학교, 부부행복학교 등 부부관계를 개선 및 증진하고자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들의 증가는 부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파악과 강점 및 약점의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개입을 시도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국내의 현장에서는 MBTI 등의 개인 기반의 상담 관련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부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심리검사 도구는 부족한 편이다. 부부관계 적응 척도, 한국판 결혼 만족 검사, PREPARE-ENRICH 결혼 만족 검사 등이 그나마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의 예이다.

부부관계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는 Spanier(1979)가 결혼 적응에 대한 네 가지 독립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적절한 문항을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전반적인 만족 수준 평가를 통해 결혼 문제로 인해 부적응을 겪고 있는 부부를 선별하는 데에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식과 김중술(1995)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결혼 만족 검사(MSI,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는 Snyder(1979)에 의해 개발되었고, 권정혜와 채규만(1999)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이 검사는 2개의 타당도 척도와 12개의 결혼 만족 하위 척도를 가지고 있는데, 표준화 과정에서 한국판에는 고부갈등척도가 더해져 문화적인 적절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현재 임상 현장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PREPARE-ENRICH 검사는 Olson 등에 의해 각각 1978년과 1981년에 개발되었고, 1998년 ENRICH Korea라는 기관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PREPARE

검사는 미혼이나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고, ENRICH 검사는 결혼 3년 이후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서 척도의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고 대상만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ENRICH만도 현재 1,500쌍 이상이 이 검사를 수검하였고, 계속하여 상담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ENRICH 검사는 1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결혼 만족 하위 척도, 각각의 하위 척도를 대표하는 별도의 문항 10개로 구성된 1개의 결혼만족척도와 4가지 성격특성 척도, 그리고 부부와 원가족의 응집성(Cohesion)과 적응성(Adaptability) 정도를 알려주는 4가지 척도 등 총 20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ENRICH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부부 두 사람이 검사를 같이 받은 후 두 사람의 응답을 비교해 준다는 것이다. 이 비교는 긍정일치점수(PCA, Positive Couple Agreement, 이후 PCA)라는 고유의 점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PCA점수 프로파일에 대한 군집분석은 다섯 가지 부부의 유형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원저자인 Olson 등은 이에 대한 맞춤식 심리치료법을 개발하여 부부치료를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부와 원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한 정보는 부부치료자로 하여금 세대간의 영향에 대한 고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ENRICH 결혼 만족 검사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은 김윤희(1990)가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보고한 정도에 그칠 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ENRICH의 후반부에 포함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는 부분만이 한국판 FACES-III(Family Ado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3rd ed.)라는 별도의 검사로 구성이 되어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졌다(배종면, 김영주, 1994; 이기섭, 이영희, 문호성, 1996; 이종일, 성덕규, 이민규, 1998; 임종한 등, 2000). 따라서 본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만족 영역의 통계적인 속성에 대한 검증은 아직 적절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결혼만족 영역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것과는 달리 본래 ENRICH의 일부였으나 이제 별도의 검사로 구성된 FACES-III 척도는 국내의 다양한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어왔다. Olson 등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가족기능이나 결혼만족도와 곡선형의 관계(circumflex relationship)를 갖는다고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이 척도에서 얻어지는 응집성 및 적응성은 결혼만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Fisiloglu와 Lorenzetti, 1994).

ENRICH 검사가 결혼만족도 검사로 제작되었고, 결혼만족과 관련된 소척도들의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검사의 활용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검증하지 못하였던 결혼만족 영역을 중심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ENRICH 검사를 국내에 도입하여 전산으로 채점을 제공한 ENRICH KOREA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검사를 받은 부부 1,058쌍 전체 자료를 분석하였다. 검사를 받은 부부들은 주로 ENRICH검사 사용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활용 자격을 얻은 지도자들이 진행한 결혼만족 세미나나 병원, 상담소 등에서 부부 치료에 참석한 부부들이었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38.5세, 아내의 평균 연령은 36.8세로 나타났으며 결혼 기간은 평균 10.2년이었다. 자세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 도구

ENRICH 결혼 만족 척도. ENRICH 검사는 기초 인구 통계적 변인과 결혼 관련 기초 변인을 묻는 배경 질문 문항과 결혼 만족에 대한 문항 등 총 165문항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결혼 중에 있는 부부가 분석 및 평가의 기본 단위가 되며 이러한 특성은 이 검사가 기본적으로 부부 치료의 초기 평가 혹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결혼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반영한다. 물론 남편과 아내 개인의 각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평가되며 이 점수

가 제시되지만 최종적으로는 부부가 긍정적으로 일치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긍정일치점수(PCA, Positive Couple Agreement)라는 각 하위 영역별 점수가 산출되도록 되어 있다. 순방향 질문인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가 4(대체로 그렇다) 또는 5(매우 그렇다)로 대답했을 때, 역방향 질문인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가 1(전혀 아니다) 또는 2(대체로 아니다)로 대답했을 때 점수가 주어진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결혼에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할 때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ENRICH에서는 PCA 이외에도 한 명은 만족하고 한 명은 만족하지 못하는 불일치 점수, 두 명 모두 불만족하는 부정일치 점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표 1〉 인구 통계학적 특성(N=1,058)

		남편		아내	
	특성(단위)	빈도	%	빈도	%
연령(세)	25세 이하	4	.4	16	1.5
	26-30	80	7.6	161	15.2
	31-35	266	25.1	284	26.8
	34-40	228	21.6	220	20.8
	41-45	222	21.0	204	19.3
	46세 이상	258	24.4	173	16.4
결혼기간(년수)	0-5	327	30.9	330	31.2
	6-10	242	22.9	236	22.3
	11-15	211	19.9	217	20.5
	16년 이상	278	26.3	275	26.0
소득(만 원)	0-70	92	8.7	387	36.6
	71-100	55	5.2	93	8.8
	101-150	147	13.9	115	10.9
	151-200	164	15.5	107	10.1
	201-300	224	21.2	174	16.4
	301-400	158	14.9	81	7.7
	401-500	97	9.2	41	3.9
	501만 원 이상	121	11.4	60	5.7

		남편		아내	
	특성(단위)	빈도	%	빈도	%
직업	공무원/사회복지	68	6.4	41	3.9
	법조계/의료계	43	4.1	29	2.7
	회사원/영업/기술직	358	33.8	91	8.6
	성직자/교수/교사	290	27.4	209	19.8
	중소기업 대표	93	8.8	6	.6
	상업/농업	58	5.5	35	3.3
	학생	33	3.1	32	3.0
	전업 가사일	3	.3	486	45.9
	무직/실업	25	2.4	37	3.5
	기타	87	8.2	92	8.7
전체		1058	100	1058	100

※ 결혼 기간 연수는 남편과 아내가 본래 같아야 하나, 본 자료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만으로 계산한 연수와 햇수로 계산한 연수의 차이가 나타난 것임.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4명의 심리학자와 1명의 영문학자, 1명의 국문학자가 ENRICH 척도를 일차적으로 번역한 후, 원문과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최종 번역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결혼만족도(전반적 결혼만족도와 10개의 결혼만족 영역)에 대한 통계적 속성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실제 연구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전반적 결혼만족도 10문항, 결혼만족도 10개 영역(각 10문항)의 100문항의 총 110개 문항을 분석의 주 대상으로 사용하였다(<표 2>의 굵은 글씨). 한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는 40개 문항은 이미 신뢰도, 타당도 및 결혼만족과의 정적 상관이 규명되었으므로 결혼만족 영역의 타당도를 검증해 주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타당도 및 성격특성에 대한 척도는 본 연구의 관심사와 다소 거리가 있는 영역이므로 이 논문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3. 자료 분석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계산하였고 시간적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8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계산하였다.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0개의 하위척도를 잠재 변수로 두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많은 문항수로 인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소척도별로 2-3개의 문항 묶음을 만들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묶음방법을 제시한 연구자들의 제안(Kishton과 Widaman, 1994;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 1998)에 따라 유의미성이 떨어지는 문항 4개와 표준회귀계수가 .3 이하인 10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86문항을 각각의 소척도 안에서 단일차원성을 유지하면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얻은 공통분의 합이 특정 묶음에 가중되지 않도록 28개의 묶음으로 만들었으며, 묶음의 값들이 균질하도록 각 묶음은 함께 묶인 문항의 수로 나누었다. 문항묶음방법을 사용하면 많은 문항이 하나의 모델에 포함됨으로 인한 과도한 오차의 상승을 통제할 수 있다(Bernstein & Teng, 1989; Kishton 등, 1994; Marsh, Antill, & Cunningham, 1989; Schau, Stevens, Dauphinee, & Vecchio, 1995; Takahashi & Nasser, 1996).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FACES III 검사의 응집성, 적응성과 소척도별 점수와 상관을 구하였고, 10문항으로 된 전반적 결혼만족 척도와 소척도별 점수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변별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결혼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부부 모두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 로 대답한 경우는 결혼 만족 집단으로 '그렇지 않다.' 혹은 '거의 그렇지 않다.' 로 응답한 경우를 결혼 불만족 집단으로 구분하고 K-ENRICH의 하위척도들의 PCA점수와 개인별 점수를 판별 독립변수로 하여 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미국판 ENRICH 결혼만족검사의 타당도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다(Fowers와 Olson, 1989). 한 문항으로 구분된 결혼 만족, 불만족 집단 구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K-ENRICH 상의 이혼 고려 여부를 묻는 문항을 기준으로 결혼 불만족 집단일수록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의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카이 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7.0을 사용하였고 이외의 모든 통계적 분석에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2〉 ENRICH 검사의 전체 구성과 하위척도 내용
(굵은 글씨는 결혼 만족을 측정하는 소검사들)

구분	척도명	문항수	척도의 내용
성격 특성 Personality Assessment	자기주장 (Assertiveness)	8*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신감 (Self-Confidence)	8	자기 자신에 대해 혹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정하는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회피성 (Avoidance)	8*	문제를 축소하려 하거나 혹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성향에 대한 평가
	파트너 지배성 (Partner Dominance)	8*	자신의 파트너가 얼마만큼 자신을 조정하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려 한다고 느끼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
	소계	8(32)	* 자기주장, 회피성, 파트너 지배성은 결혼 만족 영역의 문항들 중에서 재구성되어 활용함. 따라서 성격특성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문항은 자신감 소척도의 8개뿐임
타당도	이상주의적 왜곡 (Idealistic Distortion)	7	Edmonds(1967)의 결혼 관습화 척도 (Edmonds Marital Conventionalization scale)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척도로 부부의 긍정 편향 반응을 측정하여 개인의 점수에 있어서의 왜곡을 보정하는 데에 사용됨
전반적 결혼 만족도	결혼 만족 (Marital Satisfaction)	10	결혼만족영역의 10개 소척도를 대표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평가.(결혼 만족 영역을 대표하나 문항은 각 소척도의 문항과 다른 새로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척도명	문항수	척도의 내용
결혼 만족 영역	성격 문제 (Personality Issues)	10	배우자의 개인적인 습관, 성격 특성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의사소통 (Communication)	10	배우자에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잘 나눌 수 있고 배우자에게 이해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갈등 해결 (Conflict Resolution)	10	배우자와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다른 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재정 관리 (Financial Management)	10	현실적인 경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제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는지에 대한 평가
	여가 활동 (Leisure Activities)	10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의 양과 질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성 관계 (Sexual Relationship)	10	부부간의 성관계와 애정표현의 정도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자녀 양육 (Child and Parenting)	10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태도와 느낌에 대한 평가
	가족 친구 (Family and Friends)	10	배우자의 부모와 친척, 친구에 대한 느낌과 관심에 대한 평가
	역할 관계 (Role Relationship)	10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영적 신념 (Spiritual Belief)	10	영적 신념과 영성 활동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소계	100	

구분	척도명	문항수	척도의 내용
커플 및 가족지도 (FACES-III)	커플 응집성 (Couple Cohesion)	10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과 따로 보내는 시간의 균형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커플 적응성 (Couple Adaptability)	10	부부가 역할과 리더십에 대하여 변화와 안정성의 균형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원가족 응집성 (Family Cohesion)	10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과 따로 보내는 시간의 균형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원가족 적응성 (Family Adaptability)	10	가족이 역할과 리더십에 대하여 변화와 안정성의 균형에 대하여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
	소계	40	
	총계	165	성격 특성 8+타당도 7+전반적인 결혼만족 10+결혼 만족 영역 100+커플 및 가족지도 40

III. 결과

1. 신뢰도-내적 일치도

본 연구에서 산출된 ENRICH 결혼 만족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미국 표준화 연구에서 산출된 자료와 함께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일치도의 범위는 .63-.87로 미국에서 실시된 표준화 연구에서의 .68-.86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신뢰도-시간적 안정성

미국 연구의 경우 115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4주간의 간격으로 측정한 ENRICH의 각 하위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77(여가 활동)에서 .92(성 관계)까지로 높은 시간적 안정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30명의 피검자(15쌍)를 대상으로 8주간의 간격으로 측정한 K-ENRICH 각 하위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57(갈등해결, 재정관리)에서 .89(성관계)까지로 갈등 해결과 재정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에서 모두 높은 시간적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시간적 안정성 계수는 내적 일치도와 함께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ENRICH 하위척도의 신뢰도

	척도명	내적 일치도[a]		검사-재검사[b]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전반적 결혼 만족도	.87	.86	.86	.86
결혼 만족 영역	성격 문제	.83	.82	.70	.81
	의사 소통	.86	.82	.78	.90
	갈등 해결	.72	.84	.57	.90
	재정 관리	.85	.82	.57	.88
	여가 활동	.71	.71	.69	.77
	성 관계	.84	.85	.89	.92
	자녀 양육	.80	.78	.80	.89
	가족 친구	.72	.79	.74	.82
	역할 관계	.63	.68	.72	.90
	영적 신념	.87	.84	.67	.89

[a] N = 2,116; 1058쌍. [b] N = 30; 15쌍.

* 미국 연구는 Fowers와 Olson(1989)에서 인용.

3. 결혼만족 영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10개의 하위척도 100문항을 대상으로 AMOS 7.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값이 .048로 .05보다 낮고 90% 신뢰구간이 작아서 모형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rowne & Cudeck, 1993). 그러나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TLI값과 CFI값이 각각 .714와 .722로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많은 문항수로 인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연구방법에서 언급된 대로 문항묶음방법을 활용하여 10개의 요인구조에 각각 2-3개의 문항 묶음을 연결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RMSEA값이 .065이며 TLI값은 .90 CFI값은 .92가 나타났고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N=2116)

구분	X^2	df	p	RMSEA	LO 90	HI 90	TLI	CFI
100문항	28230.5	4805	.000	.048	.047	.049	.714	.722
28묶음	3035	303	.000	.065	.063	.067	.900	.920

4. 수렴 타당도

ENRICH의 전반적 결혼만족도 및 결혼만족 영역의 10가지 검사와 기존에 결혼만족과 상관이 높다고 알려진 FACES-III 검사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반적 결혼만족도는 PCA에서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77의 상관을, 개인의 점수와 응집성 및 적응성과는 .85, .87의 상관을 보여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다. 10가지 결혼만족 영역의 척도 역시 FACES-III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PCA 점수에서 응집성과는 .44~.72, 적응성과는 .56~.76의 상관을 나타냈다. 개인점수는 이보다 약간 높은 상관을 보여서 응집성에서 .60~.81, 적응성에서 .59~.85의 상관을 나타냈다. 모든 상관관계는 $p<.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표 5〉 결혼 만족, 커플 응집성, 커플 적응성과 하위척도들의 상관 분석 결과

		PCA		개인점수	
		커플 응집성	커플 적응성	커플 응집성	커플 적응성
	전반적 결혼 만족도	.77***	.77***	.85***	.87***
결혼 만족 영역	성격 특성	.59***	.63***	.68***	.74***
	의사 소통	.72***	.76***	.81***	.85***
	갈등 해결	.63***	.69***	.71***	.77***
	재정 관리	.59***	.61***	.63***	.65***
	여가 활동	.66***	.61***	.72***	.68***
	성 관계	.66***	.61***	.74***	.69***
	자녀 양육	.44***	.47***	.60***	.62***
	가족 친구	.58***	.64***	.64***	.70***
	역할 관계	.62***	.64***	.63***	.67***
	영적 신념	.57***	.56***	.61***	.59***
		*** p<.001 n=1,058(쌍)		*** p<.001 n=2,116(명)	

5. 변별 타당도

본 검사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와 만족하지 않는 부부를 잘 구분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결혼만족에 대하여 한 문항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결혼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결혼 불만족 집단은 76쌍의 부부로 나타났으며 만족 집단은 597쌍의 부부로 나타났다. 한 문항의 질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집단 구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혼 고려 여부 변인과 결혼 만족 여부에 따른 카이 스퀘어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만족집단의 경우 86.1%가 부부 모두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없고 2.2%만이 부부 모두가 이혼을 고려해본 반면 불만족 집단의 경우 55.2%가 부부 모두 이혼을 고려해 보았고, 17.1%만이 부부 모두 이혼을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286.868, p<.001). 결

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즉 한 문항이지만 그 응답은 이혼의사를 명확히 다르게 나누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적인 타당도가 다소 보장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겠다.

〈표 6〉 ENRICH의 기초적 집단 변별 능력 검증을 위한 분석 결과(N=673)

		집단		
		불만족	만족	전체
이혼 고려	부부 모두 안함	13	514	527
		17.1%	86.1%	78.3%
	남편만 이혼 고려	5	22	27
		6.6%	3.7%	4.0%
	아내만 이혼 고려	16	48	64
		21.0%	8.0%	9.5%
	부부 모두 고려	42	13	55
		55.2%	2.2%	8.2%
전체		76	597	673
		100%	100%	100.0%

X^2=286.868, df=3, p<.001

집단을 구분한 후에는 ENRICH의 각 소척도가 이 집단을 유의미하게 판별해줄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변별타당도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우선 피검자들을 SPSS 15.0을 통해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검증집단)에서 판별분석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그 계수들을 사용하여 다른 집단(교차검증 집단)을 분류하였다. 또한 이 절차를 개인점수를 통해 한 차례 분석하고 PCA 점수를 통해 다시 한 번 분석하여 어떤 점수가 더 높은 변별타당도를 갖는지 비교해 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개인점수를 통해서는 검증집단에서 98.4%, 교차검증에서 98.2%가 정확히 분류되었다(X^2=500.307 df=5, p<.001). PCA 점수를 통해서는 검증집단에서 95.8%, 교차검증에서 95.7%가 정확히 분류되었다(X^2=369.686 df=6, p<.001). 결과를 <표 7>에 제시

하였다.

〈표 7〉 판별 분석: 정확하게 분류되는 비율(한국 N=673, 미국 N=5,039)

구분	만족		불만족		전체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개인점수						
검증 집단	93.4	90.2	99.0	95.8	98.4	92.9
교차 검증	93.4	88.4	98.8	95.5	98.2	91.7
PCA점수						
검증 집단	84.2	86.4	97.3	96.4	95.8	91.2
교차 검증	84.2	84.7	97.2	96.5	95.7	90.1

* 미국 연구는 Fowers와 Olson(1989)에서 인용.

IV. 논의

본 연구는 한국판 ENRICH 검사를 우리나라 부부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에서 ENRICH 검사를 미국판 그대로의 형태로 수검한 사람들의 자료에 대한 통계적 속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신뢰도에서는 적절한 내적 일치도와 약간 낮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14개의 문항이 제외된 후 본래의 10개 소척도가 적절한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결혼만족도의 10개 영역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각 영역이 모두 건강한 부부관계를 잘 예측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결혼에 만족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적절히 구분할 수 있는 변별타당도도 적절하게 소유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NRICH 검사의 결혼만족도 영역은 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72~.86의 내적 일치도를 보임으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문항

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낮은 내적 일치도를 보인 영역은 역할관계 영역으로서 .63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는데, 이는 미국에서도 .68의 내적 일치도를 보여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소척도이다. 실제 문항을 살펴보면 이 소척도의 일부는 남녀의 역할에서 동등성을 물어보는 문항들이고, 다른 일부는 내가 역할을 더 맡거나 덜 맡은 것에 대한 만족/불만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소척도는 부부 사이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역할분담은 높게 요구하고 자신의 현재 역할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는 등의 불일치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영역은 문항의 분석이나 PCA의 검토는 임상적인 목적에는 잘 맞을 수 있으나 내적인 일관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역할관계에 대한 신념과 역할관계에서의 만족도의 두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7~.86의 분포를 보여 수용 가능하기는 하나 그리 높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한편으로 원저자가 이 검사는 부부가 같이 실시하게 되므로 검사를 마친 후 부부가 서로 자신이 쓴 답을 비교한 후 생활태도를 수정하거나 서로 답을 비슷하게 작성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월효과(carry-over effect)가 쉽게 나타나고 따라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치료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Olson 등, 1983)에서 현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수치는 높지 않지만 임상적으로는 수용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미국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 이상의 높은 일치를 보이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연구는 4주만에 재검사를 실시한 반면 본 연구는 8주만에 재검사를 실시한 것에서 2배의 시간 간격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더 낮은 점수 차이의 일부는 더 넓은 시간 간격 때문이라 볼 수 있겠다. 향후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피검자를 대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실시하지 못하였던 4주 간격의 재검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연구와 보다 직접적인 비교를 실시해 볼 수 있겠다.

결혼만족 영역의 10개 소검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적절한 모형 적합도가 산출되어 10개의 소검사가 나름대로 결혼관계의 특정한 측

면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100개의 문항을 사용했을 때 다소 부적절했던 검증수치(TLI, CFI)가 문항묶음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한 후에는 적절한 수치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14개의 문항이 탈락되었다. 14개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할관계 영역에서 5문항(29, 74, 89, 117, 144번), 여가활동 영역(23, 53, 124번)과 갈등해결 영역(5, 67, 109번)에서 각 3문항, 가족 친구(13번), 성격문제(7번), 자녀양육(57번)에서 각 1문항이었다. 역할관계 영역에서 많은 문항이 탈락한 것은 앞서 서술한 내적 일치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역할관계 소척도의 내용에 역할에 대한 신념과 역할에 대한 만족도의 두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여가활동, 갈등영역 등 다른 9개의 탈락문항 역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문항의 수정 또는 추가/제외를 통해 구성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FACES-III의 커플 응집성과 커플 적응성과의 상관을 검토하였고, PCA와 개인점수 모두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질 수 있겠다. 첫째로는 ENRICH 결혼만족 영역의 각 하위척도가 기존에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높다고 알려진 FACES-III와 높은 상관을 갖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FACES-III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곡선형/직선형 관계의 논란에서 직선형 관계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다. 곡선형/직선형 관계의 논란이란 본래 Olson 등이 FACES-III를 개발했을 때에는 건강한 부부(또는 가족)는 중간 정도의 적절한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진 부부이고,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응집성 및 적응성은 역기능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이 척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곡선형 관계가 실증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건강한 가정에서는 높은 응집성 및 적응성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의 응집성 및 적응성은 낮게 나타난다는 보고를 해 왔던 것이다(Olson, Gorall, & Tisiel, 2007).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더 심하였고(Olson & Gorall, 2003), 원저자는 4개정판을 통해 다시 곡선형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Olson 등, 2007). 본 연

구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고찰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곡선형 관계를 위한 검증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PCA 및 개인점수가 FACES-III와 갖는 피어슨 상관이 낮게는 .57에서 최고 .81까지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결혼만족과 가족기능이 정적인 직선형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을 높게 시사한다. 향후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별타당도에서 개인점수와 PCA점수 모두 결혼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현재 검증하고자 하는 검사가 결혼만족 영역에 대한 10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집단의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검사가 본래의 제작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한 문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본 연구의 방법상 다소간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개의 문항을 통해 결혼만족을 파악하는 것이 한 문항을 통해 파악한 결과와 같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것이라는 비판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NRICH검사가 줄 수 있는 10가지 영역의 상대적 비교와 배우자와의 점수 일치도를 파악하는 PCA의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검사 자체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간과한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 문항을 사용한 집단 구분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분된 집단과 이혼의사와의 카이자승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검사에서 얻은 점수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결혼생활의 만족도 및 이혼 여부 등을 조사하는 보다 실증적인 결과를 통해 이러한 방법상의 한계점이 극복되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임의적인 표집이라는 점이다. 1,000쌍이 넘는 대규모 자료를 가지고 구조방정식 등 다양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표준화 연구를 할 때에는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등 다양한 인구비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논의된 탈락된 14개 문항의 수정 및 영역의 분화와 더불어 보다 적절한 변별타당도의 확보 등의 과제가 후속연구를 위해 제안될 수 있겠으며, 이 검사를

사용한 부부의 적응유형이 각기 다른 문화권들에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5가지로 계속하여 나타나는바(Olson & Fowers, 2003; Allen & Olson, 2001; Olson & Garrett, 2006) 한국 부부의 유형에 대한 유형적 고찰 등의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미혼을 위한 검사인 PREPARE의 일본판 표준화에는 영적 신념에 관한 영역이 삭제되고 친척들과의 관계가 포함되었고(Asai & Olson, 2004), 우리나라에서의 K-MSI 역시 고부관계에 대한 척도가 포함된 것(권정혜, 채규만, 1999) 등을 고려할 때, ENRICH의 한국판 검사 제작 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척도를 추가하는 것도 결혼 만족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0.

김윤희. (1990). **부부관계 · 부모-자녀의사소통 ·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정애. (1993). 정형외과 및 내과 입원환자의 FACES-III를 이용한 가족기능 평가. **가정의학회지, 14**(1), 27-32.

김종성, 박암, 이영수, 조영채. (1994). 가족 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척도(FACES-III)를 이용한 알콜 중독증 환자의 가족유형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21**(1), 121-130.

김홍기, 장선향, 이선미, 정의식. (1991). 우울증 환자에서 가족지능도지수와 가족 적응력 · 결속력 평가척도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2**(7), 36-45.

배종면, 김영주. (1994). 가족구성원 1인의 FACES III 응답 이용 시 설문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가정의학회지, 15**(6), 312-321.

송남호. (1989). **만성질환자 가족군과 정상 가족군의 가족적응력과 가족 결속력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신행호, 한선호. (1993). 알콜 중독환자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 평가척도와 가족 기능도 지수에 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논문집, 16**(2), 375-383.

안영숙. (1999). **Olson의 복합순환모델을 바탕으로 한 집단상담이 심리적 독립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유재성. (2004). 한국의 이혼율 감소를 위한 제안.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7**, 385-407.

유태욱, 강형윤, 오현희, 이상화, 이혜리, 윤방부. (1991). FACES-III를 이용한 신체화질환 가족유형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2**(6), 21-27.

이민식, 김중술. (1995). 부부관계 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1-299.

이기섭, 이영희, 문호성. (1996). 가족구성원 2인을 대상으로 FACES-III에 대한 설문조사시 신뢰도와 타당도. **가정의학회지, 17**(7), 540.

이재윤, 이혜리. (1990). 가족 적응력 결속력 평가 척도(FACES-III)를 이용한 만성 알콜 중독 환자의 가족기능 평가에 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1**(10), 29-33.

이종일, 성덕규, 이민규. (1998). '가족 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척도 한국어판' 의 표준화 예비연구-신뢰도 및 타당도. **신경정신의학회지, 37**(6), 1246-1259.

임종한, 이규래, 오미경, 곽기우, 이혜리, 윤방부. (2000). 가족 적응력, 결속력 평가 척도(FACES-III)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1(10)**, 8-17.

통계청(2006). 2006년 이혼 통계.

Allen, W. D. & Olson, D. H. (2001). Five types of African American Marriage based on ENRICH,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27(3), 301-314.

Asai, S. G. & Olson, D. H. (2004). Cultural Adaptation of PREPARE with Japanese Premarital Couples. *Journal of Marital & Family Therapy, 2004, Vol. 30, No. 4*, 411-426.

Bernstein, H., & Teng, G. (1989). Factoring items and factoring scales are different: Spurious evidence for multidimensionality due to item categoriz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5*, 467-477.

Blaine J. Fowers & Olson D. H. (1989). ENRICH Marital Inventory: A Discriminant Validity and Cross-Validity Assess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1), 65-79.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Fisiloglu H. & Lorenzetti A. F. (1994). The relation of family cohesion to marital adjustment.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6(6), 539-552

Fournier, D. G., Olson, D. H. & Druckman, J. M. (1983). Assessing marital and premarital relationship: The PREPARE/ENRICH Inventories. In E. E. Filsinger(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Newbury, CA: 229-250.

Fowers B. J. & Olson D. H. (1989). ENRICH Marital Inventory: A Discriminant Validity and Cross-Validity Assess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1), 65-79

Kishton, J. M., & Widaman, K. E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757-765.

Marsh, H., Antill, J. K., & Cunningham, J. D. (1989). Masculinityand femininity: A bipolar construct and independent constructs. *Journal of Personality, 57*, 625-563.

Olson, D. H., Fournier, D. G. & Druckman, J. M. (1983). *PREPARE/ENRICH Counselor's Manual. PREPARE/ENRICH*, Inc.

Olson, D. H., Fowers, B. J. (1993) Five Types of Married Couples based on ENRICH *The Family Journal, Vol. 1, No. 3*, 196-207.

Olson, D. H. & Gorall, D. M. (200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 (Ed.) *Normal Family Processes (3rd Ed).* New York: Guilford, 514-547.

Olson, D. H., Gorall, D. M. & Tisiel J. W. (2007). FACES IV & Circmplex Model: Validation Study. http://www.facesiv.com/pdf/2.development.pdf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Schau, C., Stevens, J., Dauphinee, T., & Vecchio, A. D. (1995). The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urvey of attitudes toward statistic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 868-875.

Takahashi, T., & Nasser, E. (1996, April). *The impact of using item parcels on ad hoc goodness of fit indic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 empirical examp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NY.

The Validation Study of K-ENRICH Inventory

Kevin Deokil Kim (Yonsei University)
Jae woo Park (Holy Family Hospital, Catholic University)
Won 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Jee yeon Lee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This study is to validate K-ENRICH inventory. Total 1058 married couples' data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internal consistencies of K-ENRICH subscales were ranged from .68 to .90 and the coefficients of temporal stability(test-retest) ranged from .57 to .89.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K-ENRICH was consisted of 10 factors. Model fit indices were acceptable(RMSEA=.065, TLI=.90, and CFI=.92). Correlations between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3rd Ed.) and 10 subscales of K-ENRICH were ranged .57-.85. And discriminant analysis, which has done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showed that PCA(Positive Couple Agreement) scores could discern the maritally satisfied group from maritally dissatisfied group with 95.8% accuracy. Overall, results suggested a high internal consistency, test-retest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The meaning of the results,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 **Key words** : ENRICH, 신뢰도(Reliability), 타당도(Validity), 결혼 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논문투고일: 2009년 2월 19일, 심사일: 2009년 3월 23일, 논문게재일: 2009년 5월 20일